Wise Edutech, Wonderful Earth
WeWe(170)-2018-10(08.08)

생활환경교육과 우리학회(1/2)

김미경

최근 물, 쓰레기, 공기 등 다양한 환경문제가 이슈가 되어 신문과 방송 등에 보도되고 있다. 특히 얼마 전 있었던 재활용쓰레기 처리 문제는 미세먼지 못지않게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환경 이슈 중 하나였다. 나 역시 집에서 플라스틱, 병, 종이, 비닐, 스티로폼 등을 일정기간 모아 두었다가 분리배출을 하고 있다.

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비닐과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을 테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안내를 받고나서 꽤나 난감해 했던 기억이 있다. 이유는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한다.

비닐, 스티로폼, 플라스틱 등 우리가 분리수거 해야 하는 이유가 '쓰레기로 버려지면 매립해도 썩지 않고, 소각해도 많은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등 환경에 유해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 배출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'까지는 내 머릿속에도 각인이 되어있던 것 같다. 그런데, 비닐봉투나 이물질이 묻은 비닐은 왜 안 되는지,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뚜껑과 병에 붙은 비닐은 왜 따로 분리를 했어야 했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,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플라스틱은 여기, 비닐은 저기 등으로 나눠 버렸던 것 같다. 이러한 큰 소동이 있은 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게시판에 잘못 버려진 재활용쓰레기의 예시 사진 몇 장을 붙여놓았다. 그러나 그 예시 사진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전부를 나타내는 게 아닌 만큼, 또 쓰레기를 버릴 때 귀찮아서 그냥 버리거나, 고민하다 그냥 버리거나 등등 큰 변화를 이끌지는 못할 것 같았다.

몇 년 전 음식물 쓰레기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. 각각의 반응공정을 설명 듣다가 음식물 쓰레기 중 뼈나 조개 껍질 등 단단한 이물질이 들어오면 초기에 쓰레기를 물리적으로 잘게 갈아내는 공정에서 칼날 등이 파손되어 공정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. 이 이야기를 듣기 전에는 치킨이나 조개탕을 먹고 나온 쓰레기를 버릴 때 '이게 음식물 쓰레기니까 분리해서 버리는 게 맞나? 유기물과 달리 잘 분해되진 않을 텐데…' 라는 내적 갈등 속에 어딘가로 버렸었다. 하지만, 왜 버리면 안 되는지를 인식한 후에는 분리해서 버리고,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기도 하였다.(계속)

< 김 미 경 >
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책임연구원/환경교육위원회 위원/No.7039